

##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Grandfa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Fa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on School-age Boys' School Adjustment

손한결<sup>1</sup>

Han Gyeol Sohn<sup>1</sup>

###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grandfa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fa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on school-age boys' school adjustment.

**Methods:** A total of 217 5th and 6th grade 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126 5th graders and 91 6th graders) and their fathers living in Seoul and Gyeongnam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Grandfa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indirectly influenced boys' school adjustment through their fa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It means that fathers who perceived their fathers' parenting behavior as more positive showed a higher level of positive parenting behavior, which led to a more positive school adjustment for their sons.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results uncovered the pathways from grandfa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to school-age boys' school adjustment through their fa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in an aspect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In addition,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f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school-age boys' school adjustment and parent education programs to facilitate fa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for school-ag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ey words** grandfa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fa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school-age boys' school adjustment

\* 본 연구는 2015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됨.

<sup>1</sup> 제1저자(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e-mail : hgson00@hanmail.net)

## I. 서론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부자관계는 가족 구성의 기본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심이 되어 가족 내 여러 관계의 역동성이나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변수로 작용하였다(서선희, 2007). 부계 혈통주의에 입각한 가족은 친밀한 개인들이 생활을 공유하는 기초 단위의 역할보다는 부자관계를 중

심으로 한 가문의 계승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남호연, 2008). 전통적 한국가정에서의 어머니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역할을 하였고, 아버지는 가정의 필수적인 재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였다(나성은, 2014; 송요현, 현은강, 2006; 조정문, 장상희, 2011).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 중심의 가족관계는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였으며 아버지가 가정을 부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부모-자녀관계는 한국사회의 가족구조 변화와 산업화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했다. 여성의 학력 수준과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맞벌이 가족 형태가 증가하였고 어머니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로 인해 가정 내 부부 역할 분담에 변화가 생기게 되자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이 가정과 사회에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의 역할이 가계의 계승자, 가족의 부양자에서 1980년대 이후에는 근대적 아버지, 양성적 아버지, 양육하는 아버지로 옮겨지게 되었다(강란해, 2000). 최근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아버지들 스스로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의 아버지 세대는 대부분 조부 세대의 가부장적이고 엄격한 훈육 아래 성장해 부자간의 적극적인 애정표현이나 친밀한 대화에 익숙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아버지 역할이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이 세대에게는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 돌봄의 역할도 함께 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위치에 놓인 현재의 아버지 세대를 일컬어 ‘끼인 세대’로 표현하기도 한다(EBS 다큐프라임 <아버지의 성> 제작팀, 2012). 현재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한 양육을 해야 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형성하지 못했던 관계를 아들과는 형성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을 한 모형 안에서 살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양육경험은 성인이 되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서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Belsky, 1984; Crowell & Feldman, 1988; 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예를 들어, 가족체계 이론가인 Bowen(1978)은 개인의 경험은 부모와의 관계에 의한 것이고, 세대를 거슬러 다세대 전이과정(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의사 결정을 공유하거나 온정적으로 돌봐주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경험을 원가족과 공유한 아버지는 그들의 자녀에게 더욱 더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Hofferth, Pleck, & Vesely, 2012), 젊은 성인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행동에 관한 인식과 양육행동 의도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Roskam, 2013).

본 연구가 부계 동성 3세대 연구이므로 조부와 부의 2세대 관계, 부와 아들의 2세대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나눠서 살펴보았다. 먼저 조부와 부의 2세대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과 부모 역할수행을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 의하면 원가족 부와의 정서적 연결이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이귀애, 김영희, 2016).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양육에 만족하면 아버지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고 이는 아들이 성장한 후 성

인이 되었을 때 양육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Lamb, 1997; Russell & Russell, 1987). 또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와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할수록 아들과 애정적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은경, 김영희, 2014).

다음으로 부와 아들의 2세대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자율성 지지가 남아의 행동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장경문, 2011), 남아의 자기조절 능력은 동성 부모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았다(유은희, 임미옥, 2006). Parke(1996)는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업성취도나 사회성에 특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아버지 효과(father effects)’라고 한다. 특히 남아는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해 남성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내면화하고 사회규범을 익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남아의 발달에 고유한 기여가 있음을 알 수 있다(김기남, 2011; 최경순, 1993). 따라서 본 연구는 부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행연구의 조부와 부, 부와 아들의 2세대 연구를 확장하여 조부와 부 그리고 아들로 이어지는 부계 동성 3세대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학령기 아동이 성장기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은 각 개인의 발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핵심적인 교육의 주제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학교적응은 학령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인기에 걸쳐 심리적 결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 중 하나로서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경제 및 직업 기회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Buckner, Mezzacappa, & Beardslee, 2009; Fothergill et al., 2008; Topitzes, Godes, Mersky, Ceglarek, & Reynolds, 2009). 학령기의 긍정적인 학업 및 사회적 행동은 문제행동을 적게 일으키고 일탈동료들에 덜 개입되어 성인기에 더 나은 교육수준을 예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후 적응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Chen & Li, 2000).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학령기 아동이 학교 부적응 문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이나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가정 밖에서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Grossman et al., 2002; Marsiglio, Amato, Day, & Lamb, 2000), 자녀의 학업적 유능감이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Flouri & Buchanan, 2004; Lamb, Pleck, Charnov, & Levine, 1985), 타인에 대한 수용적 감정을 잘 개발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Culp, Schadle, Robinson, & Culp, 2000).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학령기 자녀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및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의 세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나, 3세대 연구를 중심으로 세 변인의 관계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와 이를 통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긍정적

인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박수연, 도현심, 김민정, 송승민, 2014)와 외조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김혜진, 2015)가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긍정적 양육행동은 세대 간 전이를 통해 자녀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긍정적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볼 수 있었으나 부자관계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긍정적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연구가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남아와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긍정적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부자관계와 역할 변화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학령기 남아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돕는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상남도 지역의 3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28쌍의 5, 6학년 남아와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학령 후기 남아와 그들의 아버지로 선정한 이유는 학령 후기 아동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므로 학교생활 적응 여부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력을 갖고(조수정, 2014), 이 시기의 학교생활 적응 여부는 개인의 경제 및 직업 기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uckner et al., 2009)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학령 후기 아동들은 비교적 정확하고 안정되게 자아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Harter, 1982) 학령 초기에 비해 질문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자기 보고를 신뢰롭게 할 수 있다는 점(전은정, 2009)에 근거하였다. 또한, 학령 후기 남아의 아버지들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도금혜, 2008; 이정윤, 이경아, 2004; Grossman et al., 2002)이므로 그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아의 학년은 5학년이 126명(58.1%), 6학년이 91명(41.9%)이었다. 남아의 출생순위는 외동이가 34명(15.7%), 첫째가 72명(33.1%), 둘째가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17)

	특성	빈도(%)	특성	빈도(%)	
남아의 학년	5학년	126(58.1)	가족구조	핵가족	185(85.3)
	6학년	91(41.9)		대가족	32(14.7)
출생년도	2002년	36(16.6)	출생 순위	외동이	34(15.7)
	2003년	105(48.4)		첫째	72(33.1)
	2004년	76(35.0)		둘째	97(44.7)
				셋째 이상	14( 6.5)
아버지연령	35세 미만	4( 1.8)	아버지교육 수준	중학교 중퇴, 졸업	6( 2.8)
	35~39세	11( 5.1)		고등학교 중퇴, 졸업	96(44.2)
	40~44세	97(44.7)	전문대 졸업, 대학교 중퇴	36(16.6)	
	45~50세	70(32.3)	대학교 졸업	68(31.3)	
	50~54세	33(15.2)	대학원이상	11( 5.1)	
	55세 이상	2( 0.9)			

97명(44.7%), 셋째 이상이 14명(6.5%)으로 둘째가 가장 많았다.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185명(85.3%), 대가족이 32명(14.7%)으로 핵가족이 대부분이었고, 아버지의 연령은 40~44세가 97명(4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졸업이 각각 96명(44.2%)과 68명(31.3%)이었다.

## 2. 연구도구

### 1)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이선희(2012)가 개발한 저학년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를 서한누리(2013)가 학령 후기 아동 보고용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온정(9문항), 논리적 설명(10문항), 개입(9문항), 강압(7문항), 방임(10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육행동 중 긍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온정(9문항)과 논리적 설명(10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만을 해당 척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육을 회상하여 답하는 문항들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해주셨다.’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해주셨다.’로 수정하였다.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을 예로 들면, 온정의 경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따뜻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셨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다.’ 등이 있으며, 논리적 설명의 경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셨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칭찬하거나 벌을 주셨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들 가운데 온정의 경우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11번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그러한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온정이 .81, 논리적 설명이 .90이었다.

## 2)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또한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척도와 같이 이선희(2012)가 개발한 저학년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를 서한누리(2013)가 학령 후기 아동 보고용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온정(9문항)과 논리적 설명(10문항) 두 가지 하위요인만을 해당 척도로 사용하여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들 가운데 온정의 경우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11번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그러한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온정이 .89, 논리적 설명이 .87이었다.

## 3)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은 조수정(2014)이 개발한 학령 후기 아동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학업태도/규칙준수(9문항), 또래와의 관계(7문항), 교사와의 관계(8문항), 학교만족감(6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학업태도/규칙준수는 '나는 학교에서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지시(안내)와 요구에 잘 따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래와의 관계는 '내 주변에 재미있고 다정한 친구들이 많다.', '나는 학교에서 친구를 잘 사귀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교사와의 관계는 '나는 담임선생님을 존경한다.', '담임선생님은 나를 이해하고 인정 해주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만족감은 '나는 학교 수업시간이 즐겁다.', '학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학령기 남아가 학교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학업태도/규칙준수 .89, 또래와의 관계 .90, 교사와의 관계 .91, 학교만족감 .86이었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서울시 및 경상남도 지역의 3개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의 동의하에 초등학교 5, 6학년 남아와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를 배부하기 전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였고, 질문지는 아버지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를 한 쌍으로 하여 봉투에 담아 동봉하여 각 반의 담임교사에게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학령기 남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되어 남아와 아버지가 서로의 질문지를 보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작성하였다. 남아와 아버지가 작성한 질문지는 남아를 통해 일주일 이내로 교사에게 전달하여 교사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435쌍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72쌍의 질문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62.5%), 이 중 남아만 답하고 아버지가 답하지 않은 경우(27쌍),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로 어머니가 답한 경우(13쌍),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4쌍)를 제외하고 총 228쌍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어서 총 228쌍의 질문지 중 연구변인의 표준화 값(Z)이  $\pm 3.3$ 표준편차를 벗어난 이상치

(Outlier)(Tabachnick & Fidell, 2001) 11쌍을 제외한 총 217쌍의 질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예비분석으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 경향을 살펴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설명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및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와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예비분석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먼저,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온정은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온정( $r = .14, p < .05$ ), 논리적 설명( $r =$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217)

구분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			
	1	2	3	4	5	6	7	8
1. 온정	1.00							
2. 논리적 설명	.77***	1.00						
3. 온정	.14*	.11	1.00					
4. 논리적 설명	.15*	.14**	.71***	1.00				
5. 학업태도/규칙준수	.11	.17*	.49***	.54***	1.00			
6. 또래와의 관계	.01	.60	.50***	.43***	.59***	1.00		
7. 교사와의 관계	.14*	.13	.41***	.42***	.66***	.56***	1.00	
8. 학교만족감	.10	.14***	.45***	.47***	.69***	.55***	.70***	1.00
M	2.48	2.68	3.19	3.07	3.15	3.51	3.31	3.20
SD	.50	.54	.56	.52	.47	.45	.49	.54

\*  $p < .05$ , \*\*  $p < .01$ , \*\*\*  $p < .001$ .

.15,  $p < .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논리적 설명은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논리적 설명( $r = .14, p < .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학령기 남아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인 즉, 학업태도/규칙준수,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만족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온정:  $r = .41 \sim .50, p < .001$ , 논리적 설명:  $r = .42 \sim .54, p < .001$ ).

## 2.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및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하위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추정방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과 관련하여,  $\chi^2$ 의 값이 유의하지 않고  $\chi^2/df$ 의 값이 3보다 작을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되나(Kline, 1998),  $\chi^2$ 값과  $\chi^2/df$ 의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 중 GFI, NFI, TLI, CFI는 .90보다 커야 하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되고, .05이상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판단된다(김계수, 2010). 이 기준에 따라 본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28.409(df = 17)$ ,  $\chi^2/df = 1.671$ , GFI = .969, NFI = .968, TLI = .978, CFI = .987, RMSEA = .056으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표 3>).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217)

$\chi^2$	df	$\chi^2/df$	GFI	NFI	TLI	CFI	RMSEA (LO90-HI90)
28.409	17	1.671	.969	.968	.978	.987	.056 (.012-.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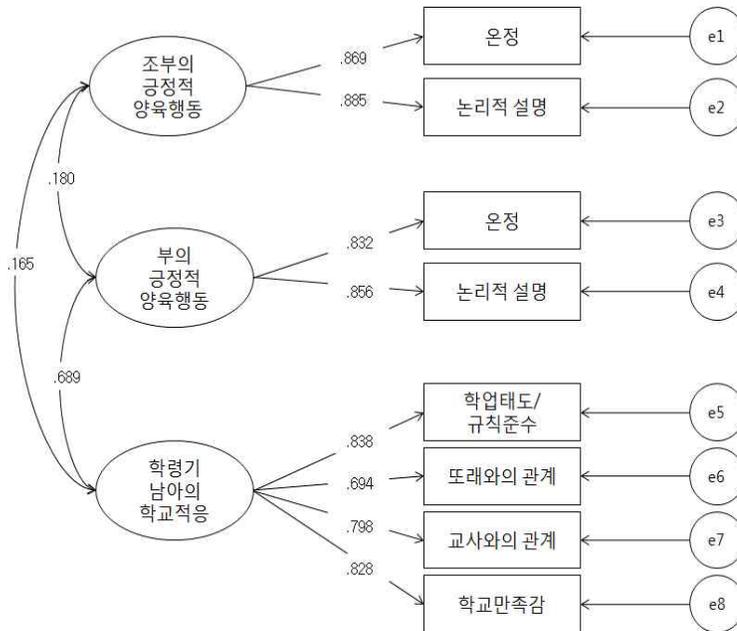
주. GFI = goodness of fit index; NFI = normed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또한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694 ~ .885로, 모두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1]).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 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들( $\beta$ )은 절대값이 .40 이상일 경우 유의한 변수로 판단하는데, 본 측정모형에서는 모든  $\beta$ 의 절대값이 .694 ~ .885로 나타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데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4〉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모수추정치 (N = 217)

잠재변인	측정변인	B	$\beta$	SE	C.R.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은정	1.000	.869	-	-
	논리적 설명	1.097	.885	.323	3.396***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은정	1.000	.832	-	-
	논리적 설명	.955	.856	.090	10.623***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	학업태도/규칙준수	1.000	.838	-	-
	또래와의 관계	.797	.694	.073	10.927***
	교사와의 관계	.998	.798	.076	13.102***
	학교만족감	1.141	.828	.083	13.707***

\*\*\*  $p < .001$ .



〔그림 1〕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 주 2.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계수는 모두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함.

### 3. 구조모형 분석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경로를 살펴보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경로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구조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217)

$\chi^2$	df	$\chi^2/df$	GFI	NFI	TLI	CFI	RMSEA (LO90-HI90)
28.678	18	1.593	.969	.968	.981	.988	.052 (.000-.087)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hi^2 = 28.678(df = 18)$ ,  $\chi^2/df = 1.593$ , GFI = .969, NFI = .968, TLI = .981, CFI = .988, RMSEA = .052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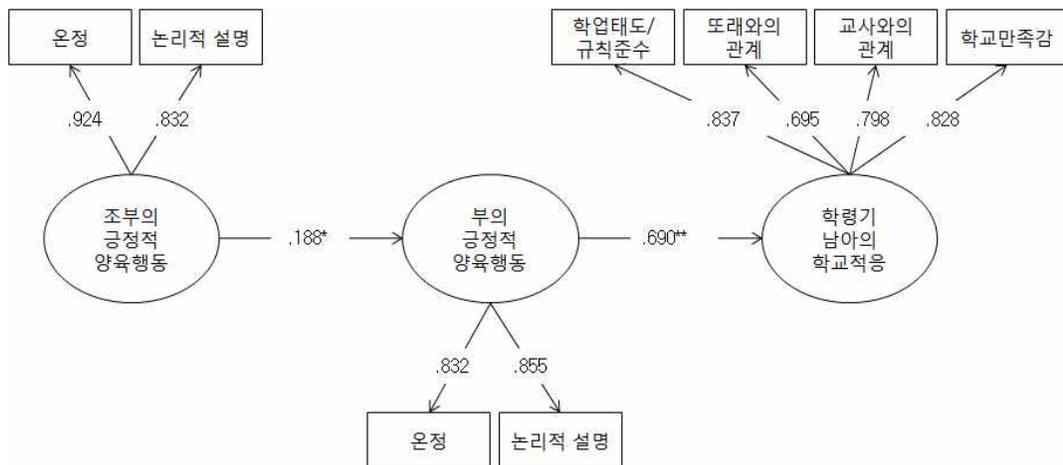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및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표 6〉, [그림 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188, p < .05$ ),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또한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690, p < .01$ ). 즉,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아버지 또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표 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217)

잠재변인 간의 경로	B	$\beta$	SE	C.R.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190	.188	.089	2.131*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	.581	.690	.067	8.684***

\* $p < .05$ , \*\*\* $p < .001$ .



(그림 2)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

\* $p < .05$ , \*\* $p < .01$ .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주 2. 오차항은 생략함.

주 3.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계수는 모두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7> 구조모형의 인과적 효과분해

(N = 217)

잠재변인 간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188*	-	.188*	.035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	.690**	-	.690**	.477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	-	.130*	.130*	

\* $p < .05$ , \*\* $p < .01$ .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추정치임.

주 2.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결과임.

주 3.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다중상관치임.

주 4.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및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았다(<표 7>).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beta = .130, p < .05$ ). 또한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본 결과,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약 4% 설명하였으며,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설명력은 약 48% 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원가족인 조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및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자관계의 변화와 역할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는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 경험한 양육행동이 긍정적이라고 회상할수록 자녀인 학령기 남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학령기 남아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하였다. 이를 통해 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조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 관계를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원가족 아버지와의 긍정적 양육경험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전주혜, 박정윤, 김양희, 장영은, 어성연, 2010)

와 일치하였고, 부모가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할수록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음을 보고한 연구결과들(김혜진, 2015; 박수연 등 2014; 이진민, 송승민, 도현심, 2011)과 유사하였다. 즉,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이나 태도, 사고방식을 보고 배우면서 아버지 역할을 내면화하게 되어 양육행동이 다음 세대까지 전이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바람직한 아버지 양육행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학령기 남아가 학교적응을 잘하였다. 즉, 아버지가 학령기 남아를 수용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온정적인 양육행동과 자녀를 지도하는 데 있어 합리적 기준이나 이유에 근거한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남아는 학업태도, 규칙준수,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교만족감을 포함하는 학교적응을 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온정적이고 논리적 설명을 포함하는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이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서한누리, 2013)와 일치하며,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이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기성진, 2012; 김미인, 장영애, 2007; 박윤정, 2010; 이애옥, 2008; 이정운, 이경아, 2004; 이지원, 2010). 또한,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수용형 집단과 방임·지배형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결과(김혜경, 2010)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기여하고 사회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쳐 학교만족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서 아버지만의 고유한 영향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어머니와 자녀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양육자로서 부성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EBS 다큐프라임 <아버지의 성> 제작팀, 2012).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아버지의 영향과 역할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어머니였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아버지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장 내 점심시간이나 야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가족캠프에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면 아버지들의 긍정적 양육행동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은 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조부-부-남아의 간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3세대 간의 관계가 입증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원가족과의 경험이 긍정적이지 못할 경우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낮은 안정성을 보이며(Bouchard, 2012),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양육 경험은 그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권위적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품행장애나 반사회적 행동과 매우 높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Smith & Farrington,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세대 간 전이를 입증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조부의 양육행동과 부의 양육행동 사이에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영향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려는 노력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려는 욕

구가 더 보편적이고 중요하다는 점(권석만, 2008)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고, 이러한 긍정적 양육행동이 긍정적 결과를 불러온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본 연구결과,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아버지가 회고식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실제 조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축소하여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조부와의 관계에 따라 기억이 다소 왜곡되었거나 변형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Kida(2006)는 자신의 기억을 확신한다고 해도 현재의 환경과 믿음, 암시적인 질문에 영향을 받아 기억은 변화한다고 밝혔으며, Schacter(2002)은 과거를 기억해 내는 일은 과거로부터 갖고 있던 것과 현재 기억하고자 하는 것 사이의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상황이나 환경이 기억 내용을 결정짓는데 더 크게 작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긍정적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김혜진, 2015; 박수연 등, 2014; 최선, 2015)은 원가족의 영향력이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회고식 보고 방법이 가진 제한점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변인들은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 외에 더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으며, 원가족 중 본인의 어머니인 조모와의 애착관계와 교육수준, 직업, 수입 등으로 지표화되는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중요한 관련 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아버지가 조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부터 받은 영향 외에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본인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들의 교육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선진화된 문화 접촉이 많아지면서 아버지들 스스로가 양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기 시작하여 아버지가 경험했던 양육행동 중 결핍되었던 부분들을 자녀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남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가 일반화되어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집대상과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조부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부의 회고식 보고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억의 왜곡이나 누락의 가능성, 현재의 판단이나 해석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세대 간 전이 연구가 단일 정보원의 자기보고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의 종단 연구는 다수 정보원과 다수 관측 자료가 제공되어 단일 정보원의 회고를 지원한다(Chen & Kaplan, 2001; Thornberry, Freeman-Gallant, Lizotte, Krohn, & Smith, 2003).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종단적 연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해석의 변화가 한국 시대 흐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Chao, 1994; Reitman, Rhode, Hupp, & Altobello, 2002). 본 연구에서는 다른 두 세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데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 양육행동이 가지는 의미나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비교문화 연구에서의 결과와 결합하여 시대에 맞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긍정적 양육행동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동성 부모-자녀의 양육행동 세대 간 전이와 관련하여 특히 부자관계에 초점을 두어 시대 흐름에 따른 부자관계의 변화와 그 의미가 갖는 중요성을 제시하여 양육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연구의 폭을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아버지를 향한 조부의 간접적인 영향과 학령기 남아를 향한 아버지의 영향력을 입증함으로써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와는 다른 아버지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이 요구되는 현실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 중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학령기 남아의 학교적응에 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학교적응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란혜 (2000).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자녀양육 행동의 비교. **아동학회지**, 20(2), 119-133.
- 권석만 (2008). **긍정 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기성진 (2012).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7(5), 127-136.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기남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성발달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인, 장영애 (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 참여도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3), 379-390.
- 김혜경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2015).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자기분화 및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성은 (2014).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내재한 젠더 위계와 '신 도구적' 부성의 연구: 맞벌이 중간 계층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26(1), 1-39.
- 남호연 (2008). 호주제의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생물학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금혜 (2008). 아버지 관련 변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61-872.
- 박수연, 도현심, 김민정, 송승민 (2014).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 및

-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령 후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2), 117-136.
- 박윤정 (2010).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선희 (2007). 부자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12**(1), 105-125.
- 서한누리 (2013).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령기 남녀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요현, 현온강 (2006).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성. **아동학회지**, **27**(5), 19-34.
- 연은경, 김영희 (2014).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관계와 부부관계가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9**(3), 509-527.
- 유은희, 임미옥 (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 이귀애, 김영희 (2016).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과 부부친밀감 및 역할수행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93-119.
- 이선희 (2012). 학령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애옥 (2008).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분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6**(2), 261-276.
- 이지원 (2010).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민, 송승민, 도현심 (2011). 조부모 및 부모 양육행동의 세대간 전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85-97.
- 장경문 (201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가 남녀 초등학생의 자존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243-261.
- 전은정 (2009). 아동의 공감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주혜, 박정윤, 김양희, 장영은, 어성연 (2010).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8**(2), 1-15.
- 조수정 (2014). 학교 후기 아동용 학교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정문, 장상희 (2011).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 최경순 (199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4**(2), 115-135.
- 최선 (2015). 긍정적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와 민주적 양육신념에 관한 연구: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학생의 학교 부적응 진단과 대책(Ⅱ)(연구보고 RR 2013-0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ouchard, G. (201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nd transition to fatherhood: Mediated-moderation model of paternal engage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5), 747-755.
- Bowen, M. (1978). *Family treatment in clinical practice*. NY: Jason Aronson Books.
- Buckner, J. C., Mezzacappa, E., & Beardslee, W. R. (2009). Self-regulation and its relations to adaptive functioning in low income youth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1), 19-30.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4), 1111-1119.
- Chen, Z., & Kaplan, H. B.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7-31.
- Chen, X., & Li, D. (2000).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dulgence and their relations to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3), 401-419.
-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5), 1273-1285.
- Culp, R. E., Schadle, S., Robinson, L., & Culp, A. M. (2000). Relationships among paternal involvement and young children's perceived self-competence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1), 27-38.
- EBS 다큐프라임 <아버지의 성> 제작팀 (2012). *아버지의 성: 아빠가 된 남자를 탐구하다*. 서울: 베가북스.
- Flouri, E., & Buchanan, A. (2004). Early father's and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s later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2), 141-153.
- Fothergill, K. E., Ensminger, M. E., Green, K. M., Crum, R. M., Robertson, J., & Juon, H. (2008). The impact of early school behavior and educational achievement on adult drug use disorders: A prospective study. *Drug and Alcohol Dependence*, 92(1-3), 191-199.
- Grossman, K., Grossma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sc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1-337.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 Hofferth, S. L., Pleck, J. H., & Vesely, C. K. (2012). The transmission of parenting from fathers to son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2(4), 282-305.
- Kida, T. E. (2006). *Don't believe everything you think: The 6 basic mistakes we make in thinking*. NY: Prometheus Books.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The Guilford Press.
- Lamb, M. E. (1997).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roductory overview and guide.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th, pp. 1-18). NY: Wiley Press.
- Lamb, M. E., Pleck, J. H., Charnov, E. L., & Levine, J. A. (1985). Paternal behavior in humans. *American Zoologist*, 25(3), 883-394.
- Marsiglio, W., Amato, P., Day, R. D., & Lamb, M. E. (2000). Scholarship on fatherhood in the 1990s and beyon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1173-1191.
- Parke, R. D. (1996). *Fatherhood: What determines fathers' involve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eitman, D., Rhode, P., Hupp, S. D. A., & Altobello, C.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revised.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4(2), 119-127.
- Roskam, I. (2013). The transmission of parenting behaviour within the family: An empirical study across three generations. *Psychologica Belgica*, 22(4), 49-64.
- Russell, G., & Russell, A. (1987).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al*, 58(6), 1573-1585.
- Schacter, D. L. (2002). *The seven sins of memory: How the mind forgets and remembers*. NY: Mariner Books.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91-106.
- Smith, C. A., & Farrington, D. P. (2004). Continuities in antisocial behavior and parenting across three genera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5(2), 230-247.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 ed.). MA: Allyn & Bacon Press.
- Thornberry, T. P., Freeman-Gallant, A., Lizotte, A. J., Krohn, M. D., & Smith, C. A. (2003). Linked live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ntisocial behaviou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2), 171-184.
- Topitzes, J., Godes, O., Mersky, J. P., Ceglarek, S., & Reynolds, A. J. (2009). Educational success and adult health: Findings from the Chicago longitudinal study. *Prevention Science*, 10(2), 175-195.